

중동 국제관계에 대한 구조적 관점에서의 이란 해양전략에 대한 분석: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오 동 건*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중동의 역학구도와 그 해석
- IV. 이란의 해양전략
- V. 결론

◀ 국문 초록 ▶

2019년 5월과 6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들의 연이은 피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양안보의 불확실성은 증대되고 다수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역내 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청해부대 임무구역 확장이라는 독자적인 형태로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해양안보 안정화를 위해 노력 중이나, 호르무즈 해협의 주요 역내 행위자인 이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며, 이란 또한 공식적으로 자국의 해양전략을 발표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실주의적 시각, 특히 케네스 월츠로부터 시작된 방어적(구조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아랍-페르시아의 양극체제로서의 중동의 정세를 분석하고, 아울러 이란의 독특한 이중화된 군 구조와 구분된 역할, 그리고 전력구성을 연구함으로써 이란의 국가전략과 해양전략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 이란, 해양안보, 해양전략, 현실주의, 중동 정세

I. 서론

2019년 5월 12일, 아라비아 반도의 끝, 페르시아만과 오만 해를 연결하는 호르무

* 해군 소령, UC San Diego 국제관계학 석사, e-mail: crom0605@gmail.com

즈 해협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2척을 포함한 총 4척의 선박이 해상에서 원인 미상의 공격을 받았다. 다음 달인 6월 13일, 이번에도 2척의 선박이 피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모든 승조원들은 무사히 탈출하였다. 이번에 공격받은 2척의 선박은 각각 노르웨이와 일본의 선사에 소속된 선박으로, 해당 노르웨이 선사는 노르웨이 해운 관련 매체를 통해 이들 선박이 “어뢰에 의해 피격” 받았다고 주장하였다.¹⁾ 선박에 대한 공격의 주체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으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이란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이 공격의 주체를 이란으로 지목하고 비난하였다. 미국은 이란을 지목한 그 근거로 첫 피격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5월 초 미국이 이란산 석유에 대한 전면 금수조치를 시행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번 공격은 미국의 조치에 대한 이란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2019년 11월부터 미국, 영국, 호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알바니아 등이 참가한 ‘국제해양안보구성(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nstruct: IMSC)’이라는 다국적 해양안보체를 출범시켰다.²⁾

동맹국인 미국이 주도적으로 만든 기구인 만큼, 2009년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인근인 아덴만에서 대해적작전을 수행 중인 대한민국 해군 또한 IMSC에 참가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페르시아만에서의 동맹에 기여, 그리고 역내 해양안보 안정화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한국은 IMSC에 참가해야만 했을 것이나, 한국과 이란과의 양자관계를 고려하면 한국 해군이 IMSC에 참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국제적 요구가 지속되어 왔으며, 결국 한국 해군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한시적으로 확장하고 공식적으로 IMSC의 일원으로 활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해양안보 문제에 참가하게 되었다. 청해부대는 호르무즈 일대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필요 시 IMSC와 협력할 예정이다.³⁾

한국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위협의 주체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단지 “현 중동정세를 감안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확장하였다고 설명하였다.⁴⁾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를 저해하는 주체를 이란으로 지목하였으며, IMSC 또한 직접적으로 위협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IMSC는 이란과 반목하는 미국이 주도가 되어 설립된 점, 그리고 2019년 연속적인

1) 이경민, “호르무즈 해협서 또 유조선 2척 피격...이란 배후 부인”, 『조선일보』, 2019. 6.13.

2) 이해영, “미, ‘호르무즈호위연합→해양안보이니셔티브’ 호칭 변경”, 『연합뉴스』, 2019. 8.29.

3) “청해부대 임무구역 한시적 확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1.21.

4) Ibid.

상선 피격 사건의 주체를 이란으로 지적한 점을 고려하면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란과의 양자관계를 고려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IMSC와 별도로 ‘유럽호르무즈해협호위작전(European Maritime Awareness in the Strait of Hormuz: EMAoH)’이라는 안보공동체를 설립하여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성에 대응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과 공동체의 연이은 설립 등을 보았을 때, 위협의 주체가 어떤 국가임을 떠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갖는 비중은 매우 크다. 또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이 확장되었을 때 국내 여론이 가장 우려하던 바는 과연 해적을 상대하기 위해 개조, 개장한 청해부대가 해적이 아닌 정규군인 이란 해군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장훈은 45,000여명의 병력과 다수의 수상함, 잠수함 전력을 보유한 이란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다수의 대형 상선을 격침시킬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 시 자칫하면 위협에 빠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는 한국의 ‘양다리 전략’을 비판한 바 있다.⁵⁾

하지만 국내에서 이란 해군과 이란의 해양전략에 대해서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이장훈의 글을 비롯, 다수의 언론자료는 산재하여 있지만 이란 해양전략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란 해군이 어떤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연구 및 분석한 논문은 부재한 상태이다. 국외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란의 국제관계에 대한 논문 및 군사력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이란이라는 국가를 하나의 행위자로 보거나 신정국가 또는 시아파라는 이란의 국가 특성에 따른 연구가 대부분으로 대부분 이란 국가차원의 연구이다. 미 해군 정보국의 이란 해군에 대한 분석, 그리고 미 해군 예비역 연구위원들이 주축이 된 미국의 CSIS 또는 영국의 IISS 연구들은 이란 해군과 해양전략에 대한 연구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나 이란의 해양전략을 중동의 국제정세와 연관하여 도출한 연구는 드문 현실이다.⁶⁾ 따라서 본 연구는 이란의 해양전략과 해군의 능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어떤 위협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과연 이란의 해군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해양전략과 전력을 발전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란은 서방세계 등 여러 개방적인 국가들과 달리 국방

5) 이장훈, “청해부대, 중동의 해양 화약고로 진입하다”, 『월간중앙』 202003호, 2020. 2.17.

6) 미국 해군정보국의 이란 해군에 대한 보고서는 이란 해군의 구조와 전략에 대해서 알기 쉽게 다루고 있으나 군에서의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문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적절한 이론적 분석의 틀을 제공하지 않는다. 2017년 미국 CSIS의 *Deterring Iran After the Nuclear Deal* 프로젝트는 이란 핵협정 체결 이후 변화될 이란의 국제정세에 대해 전 세계적인 국제관계의 틀 내에서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핵협정의 파급효과에 다소 지엽적인 문제라 볼 수 있는 해양전략에 대한 논의는 부재하다.

백서 등 국가의 군사정책 및 전략에 대해 정기적으로 새로이 발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군사정책과 전략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 및 기관들은 이란의 헌법에서부터 이란 군사지도자들이 발표한 내용, 이란군의 조직과 전력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그 실체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⁷⁾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이란의 해양전략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이란이 마주하고 있는 중동 정세를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이란이 취할 것이라 예측하는 국가전략과 해양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동의 정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중심으로 하고, 이에 이스라엘이라는 변수가 추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중동의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이란의 해양전략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는 두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양극체제의 틀이 가장 강한 설명력을 가지는 바, 구조적, 또는 방어적 현실주의의 측면에서 이란의 해양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이란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해양전략을 전개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이란의 해양전략이 한국 해군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간략히 논할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1. 현실주의에 대한 담론

현실주의는 이론의 명칭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현실적’이며, 예로부터 강한 설명력을 가져왔다. 현실주의의 큰 맥락은 기원전 5세기 투키디데스가 필로폰네소스 전쟁사를 통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분석하는 데에서부터 적용되었고, ‘세력균형’ 또한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의 전후 질서를 재건하는 데에 있어 사용된 개념으로 국제정치학이 학문으로 발전하기 이전부터, 세력균형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학문적 체계가 갖추어지기 전부터 국제정치의 행위자들이 현실세계에 적용하던 개념이다.

현대의 현실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한스 모겐소에 의해 국제정치의 논의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모겐소의 현실주의는 투키디데스로부터 내

7) 미국의 의회조사국의 이란의 군사 및 외교정책에 대한 보고서에도 기타 국가들에 대한 분석보고서와 달리 이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문서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 기타 미국의 주요 라이벌들과 달리 이란은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문서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문서를 참조. Kenneth Katzman, “Iran’s Foreign and Defense Polici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pril 29, 2020.

려오는 ‘고전 현실주의’라고 일컫는 학파의 마지막 세대로 분류된다. 모겐소는 국제정치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국제체제의 무정부성(anarchy)에 주목하며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다름을 이야기하였다. 모겐소는 인간은 그 내재된 본성에 의해 권력(power)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국내 및 국제의 분쟁은 모두 권력을 얻기 위한 행위로 분석하였으며, 국내정치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권력다툼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존재하나, 국제정치는 국가 간의 다툼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위체가 부재한 것에 주목하였다.⁸⁾

모겐소의 현실주의는 근 20여년 동안 현실주의에 대한 담론의 주류를 이루었으나, 1979년 케네스 월츠의 국제정치학 이론(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이 대두되면서 현실주의 담론의 주도권을 월츠로부터 시작되는 ‘신현실주의’ 또는 ‘구조현실주의’에게 내주게 되었다. 월츠는 모겐소와 무정부적인 국제체제라는 대전제는 공유를 하고 있으나,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는 고전적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한 권력이 아닌 안보(security)라고 분석하였다. 권력은 국가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그 수단에 불과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월츠가 ‘구조현실주의자’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국가들 간 다툼의 원인을 분석한 데에 있다. 모겐소는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내재된 본성을 국가 간 다툼의 원인으로 분석하였으나 월츠는 이러한 고전 현실주의자들의 분석을 ‘환원적(reductive)’이라 주장하며, 무정부체제라는 국제정치의 구조적 특성에 국가 간의 다툼이 발생한다고 분석하였다. 월츠는 국제정치의 구조의 형태를 강대국의 수에 따라 구분하였다. 월츠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단극(unipolar), 양극(multipolar) 체제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체제의 구조를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국제체제의 특성에 따라 권력의 배분이 상이해진다는 것을 논의하였다.⁹⁾

다시 한 번의 20년이 지난 후, 미어샤이머는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의 개념을 제시한다. 미어샤이머는 월츠의 논의 중 모겐소와 다른 분석, 즉 국가들 간의 분쟁은 인간의 내재된 본성이 아닌 무정부적 국제체제에 그 원인이 있다는 점을 공유한다. 하지만 미어샤이머의 논의가 월츠가 다른 점은 국가가 단지 현 국제체제의 현상유지(status quo)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 패권획득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미어샤이머는 그의 주장이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띤다는 점을 들어 스스로 ‘공격적 현실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고, 현상유지를 목표로 한다는 월츠의 현실주의를 ‘방어적 현실주의’라고 명명하였다. 단, 미어샤이머의 주장은 모겐소의 국가가 패권을

8)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Alfred A. Knopf, 1948), p. 25.

9)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Mass.: Addison-Wesley Pub, 1979), pp. 84-110.

추구한다는 점을 공유하나 국제체제의 구조적 측면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공격적 현실주의에 따르면, 국가가 상대적인 권력 위치를 다른 국가에 비해 극대화하게 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국가 정치집단이 특정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국제체제로 말미암은 것이다. 무정부체제 하에서 모든 국가는 자조(self-help)의 원칙 하에 스스로를 방어하고자 하며, 이는 타 국가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군사력을 획득하려는 노력을 불리일으키게 된다. 하지만 자국의 군사력과 타국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누가 더 우월한지 판단은 매우 어려우며, 상호 간의 제한된 판단은 국제사회에 불확실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미어샤이머는 어떤 국가가 만족할 만한 현상유지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으며, 자국의 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역내 패권을 달성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국가들이 추구하는 것은 지역 내에서의 패권국가임을 강조하며, 전 세계를 아우르는 세계적 패권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국제체제에서 단극체제(unipolar system)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 주요원인을 전력투사(power projection)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한다. 19세기의 영국, 20세기의 미국 등이 아무리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 미국이 10여개의 항모강습단(CSG: Carrier Strike Group)을 운용하며 전력을 투사한다고 하더라도 대양을 넘어서 전력을 투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미국은 단극체제의 패권국가로 역할을 하는 대신 역외 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¹⁰⁾

현실주의에 대한 답론은 이보다 훨씬 다양한 측면을 가지를 뻗쳐 나갔으나, 이란의 해양전략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수준에서 현실주의의 주류를 이루어온 것들로만 간략하게 다루어보았다. 앞서 살펴본 고전, 구조(방어적), 공격적 현실주의 중 이란의 해양전략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주목해야할 것은 방어적 현실주의이다.¹¹⁾ 방어적 현실주의는 이란을 둘러싼 중동의 역학구도를 분석하는 데에 적절한 틀을 제공해준다. 방어적 현실주의는 무정부적 국제체제에 중심을 두고 국제체제를 다루며, 강대국의 수에 따라 국제체제의 형태를 구분한다. 또한, 국가는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기 보다는 국가의 안보확립을 위해 현상유지에 더욱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방어적 현실주의의 틀은 아라비아-페르시아의 수 천년을 이어온 중동의 양극체제에 대해 적절한 설명력을 제공해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10)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Updated Edition* (Norton: New York, 2013), pp. 4-26.

11) 구조현실주의라는 이름이 훨씬 널리 사용되나, 공격적 현실주의와 대비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방어적 현실주의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표 1〉 현실주의 주요 이론의 차이점

구분	고전현실주의	방어적 현실주의	공격적 현실주의
국가 간 권력을 향한 다툼의 원인	국가에 내재된 권력을 향한 본성	체계의 구조	체계의 구조
국가가 원하는 권력의 정도	헤게모니 확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최대한의 권력 획득	세력균형을 위하여 국가가 확보할 수 있는 수준	헤게모니 확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최대한의 권력 획득

* 출처 :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p. 22.

2. 국가전략과 해양전략, 해군 간의 관계

국가전략은 국가 모든 전략의 최상위 개념으로 존재하며 국가 모든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에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흔히, 해양전략은 국가전략의 하위개념 중 하나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전략과 해양전략에 대한 개념은 그를 정의하는 사람에 조금씩 상이하지만, 크게 군(軍)과 민간에서 정의하는 바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군에서는 국가전략을 술(art)과 과학(science)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정의한다. 한국 합참은 국가전략에 대해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력의 제 수단을 발전시키고 운용, 조정하는 술과 과학”¹²⁾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해군 전력분석평가시험단은 해양전략에 대해 “평시 및 전시에 국가의 해양력을 운용하고, 해양을 사용하는 술과 과학”¹³⁾으로 정의하고 있다. 군은 두 가지 전략에 대해 모두 술과 과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결국 국가목표(end)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means)과 방법(way)으로서 국가전략과 해양전략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술과 과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용어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군인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용이하나, 이러한 용어들을 잘 접해보지 못한 민간 사회에서는 다소 이해가 어려운 방식의 정의이다.

민간에서의 국가전략을 규정하는 데에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을 사용한다. 한용섭은 “국력을 이용하여 국가목표, 혹은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지침과 방책”¹⁴⁾이라고 술과 과학 대신 지침과 방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가전략이란 개념에 대한 이해를 더 용이하게 한다. 미 해군대학의 하텐도르프 교수는 국가전략과 해양전략의 개념, 해군의 역할과 제반 요소들의 상호관계를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는 “국가전략(grand strategy)은 국가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2)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2014), p. 60.

13) 해군 전력분석평가단, 『해양전략용어 해설집』 (계룡 :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2017), p. 120.

14) 한용섭, “국가전략과 군사전략: 한국적 군사전략 정립을 위한 방향성,”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8, p. 229.

힘의 종합적인 방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해양전략은 이의 연장선상에서 “해양에서의 국가이익과 관련된 국력의 모든 방향”으로 정리하였다.¹⁵⁾ 즉, 해양전략은 바다라는 영역에서의 국가전략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한 국력의 운용으로서 국가전략과 해양전략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양전략의 요소 중 해군이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해양전략은 외교, 해상무역의 안전,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된 이익, 해안방어, 해양의 활용에 대한 국제적 레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텐도르프는 해양전략에서 해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는데, 바로 해군은 해상에서 인간활동을 통제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해군은 상대세력에 반하여 해양에서의 활동을 통제하고, 가능한 해역에서는 해양에서의 통제활동을 시행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하텐도르프는 오늘날 해군의 활동을 해군전략이라는 범주로 제한하고 해양전략과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고, 해양전략의 틀에서 국가이익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로 이해해야하는 것으로 본다.¹⁶⁾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이란의 해양전략을 논의함에 있어 중동의 정세를 방어적 현실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이란의 국가이익과 목표를 도출하여 그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틀에서 이란의 해양전략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이란 해군의 조직과 전력, 활동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이란의 해양전략과 결부시킴으로서 이란의 해양전략이 어떠한 수단(means)을 통해서 그 목표(end)를 달성해 나가는 것일지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III. 중동의 역학구도와 그 해석

1. 아랍계와 페르시아계의 갈등

이란의 해양전략을 다루기에 앞서, 오늘날 중동의 역학구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비록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가 위치하고 있으나 사막지대의 척박한 기후 때문에 중동의 중심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1926년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건국된 이후 1930년대에 석유가 발견되고 미국 석유회사들이 석유 채굴에 성공하면서 역내 중요성이 크게 향상되고, 전제군주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석

15) John B. Hattendorf, “What is a Maritime Strategy?”, *Soundings* No. 1 (October 2013), p. 7.

16) John B. Hattendorf, “What is a Maritime Strategy?”, pp. 8-10.

유의 중요성 때문에 미국과 오늘날까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은 중동의 오랜 역사 동안 중동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온 페르시아의 역사를 이어오는 국가였으나, 팔레비 2세의 치하에서는 친서방외교를 주축으로 하는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국가이기도 했다. 그러나 1979년 이슬람 혁명이 발발하며 팔레비 왕조를 축출하고 집권한 호메이니는 쿠란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한다는 보수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자로 이란을 대표적인 반미주의 국가로 돌변시켰고,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 또한 강하게 배척하기 시작하였다.

이란은 과거 이슬람의 발생 이전까지 중동 지역을 제패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이며, 기타 중동 지역의 국가들과 상이하게 페르시아어를 사용한다. 이란은 페르시아 민족이 주요 민족 구성원이며, 아라비아 반도를 마주보고 사이에 두고 있는 해협을 이란은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른다. 이란과 역내 패권을 두고 다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를 중심으로 하는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국가들은 모두 아랍민족이 주 국가의 주 구성원이며,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위의 해협을 ‘아라비아만’이라고 호칭한다. 두 집단은 종파적 차이도 크다. 중동 지역의 국가들은 대부분 이슬람을 국교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종교들이 여러 분파를 가지고 있듯이, 이슬람교 또한 ‘시아파’와 ‘수니파’라는 큰 종파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란은 ‘시아의 초승달’이라고 불리는 이란-이라크-시리아의 시아파 국가들을 대표하는 시아파의 맹주이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주변 GCC 국가들은 대부분 시아파와 종파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수니파 국가들이다.¹⁷⁾

이러한 중동의 정세는 페르시아와 아랍을 대표로 해온 대립을 바탕으로 갈등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중동의 정세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역사적, 종교적 이유가 바탕이 된다고 해도 이를 현실주의가 아닌 구성주의를 포함한 여타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페르시아와 아랍, 또는 수니파와 시아파는 결국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현실주의적 패권 갈등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봐야한다. 과거 페르시아는 중동 지역의 패권국가로 오랜 기간 군림해왔지만, 이슬람의 탄생 이후 아랍의 이슬람 세력에게 밀려 잠시 중동의 패권을 이슬람 왕조에게 내주게 되었으나, 사산조 페르시아부터 이슬람을 흡수한 후 중동의 패권 다툼에 다시 뛰어들게 되었다. 수니파와 시아파의 오랜 역사적 싸움은 비록 표면상으로 종교적 교리 대립의 문제로 볼 수 있으나, 수니파와 시아파가 분파된 배경부터 정치적인 문제, 즉 누가 패권을 가지느냐의 문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시아파와 수니파의 분파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그의 장인

17) 단, GCC 국가 중 오만은 이바디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의 국가들도 수니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시아파 신자 또한 국가별로 비율은 다르지만 다수 분포 중이다.

이자 친구인 아부 바크르로 봐야하느냐(수니파), 아니면 그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로 봐야하느냐(시아파)의 다툼에서 시작되었으며, 최초 이슬람 내부적인 권력다툼의 문제였던 이러한 갈등은 이슬람이 중동 지역에 골고루 퍼지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었으며, 역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두 파벌 간의 패권 다툼으로 발전하게 되었다.¹⁸⁾

둘째, 이란과 아랍 국가들의 패권 다툼은 역사적, 종교적인 바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중동 지역 정세는 결국 무정부적 국제체제라는 구조적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다.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에서 종교적인 측면은 오늘날 중요치 않다. 오히려 종교적인 측면은 중동 지역의 국제문제에 참가하기 위한 명분과 수단을 제시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을 상부에서 조정해줄 수 있는 권위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중동에서의 종파갈등은 수니파와 시아파라는 미명 하에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표되는 양극 체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를 자처하며 예멘, 시리아, 레바논 내전에 참가하여 시아파들을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중동 지역의 많은 학자들은 이를 종교적인 이유에 앞서 수니파, 또는 아랍 세력이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보유하여 세력 균형의 추가 상대방으로 기우는 것을 방지하려는 이란의 국제정치적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¹⁹⁾

셋째, 중동의 국가들은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중동을 넘어 국제적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은 전후 대부분 친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엄청난 국방비를 쏟아 붓고 있는데, 그 국방비의 대부분을 미국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데에 소요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에는 미국, 호주, 프랑스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주둔하고 있고, 바레인에는 미국 5함대사령부 본부가 주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IMSC의 본부가 설치되어 있다. 그와는 달리 이란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심지어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²⁰⁾ 현재 2018년 미국의 탈퇴로 이란 핵합의(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의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이란은 이란 핵합의가 이행되면서 무기체계의 수입에 대한 제재가 해제될 것을 대비해 중국과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²¹⁾

18) Jon B. Alterman, "Regional Perspectives on Iran," *Deterring Iran After the Nuclear Deal*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March 2017), pp. 74-85.

19) Ibid., p. 84.

20) 이란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이전된 것으로 보고 있고, 이란의 Gadhiri급 잠수정은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의 수출형으로 보여진다.

21) 2020년 10월 18일부터 이란과 재래식 무기 거래에 관한 유엔제재가 해제 되었으나, 이란 핵합의에 이미 탈퇴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독자제재를 포함, 이란과 무기거래를 하는 국가들에게 2차 제재 등 다양한 수단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라 발표했다. Patrick Wintour, "Iran Hails Lifting of 13-year UN Arms

2014년 9월에는 중국 구축함 2척이 이란에 기항한 바도 있다.²²⁾ 결론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갈등이 단순히 중동 내부에서의 갈등을 넘어서 사우디와 미국, 이란과 중국-러시아라는 전 세계적 패권의 라이벌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는 구조적 현실주의의 틀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2. 이스라엘과 아랍의 관계 진전

2020년 8월 13일, 중동의 양극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동은 오랜 기간 아랍과 페르시아 간의 양극체제를 유지해왔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어 중동은 약간이나마 다극체제와 유사한 성격을 나타나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아랍계인 팔레스타인 거주지역에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아랍인들과 4차례에 걸친 중동전쟁을 치르고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고립되던 와중에도 이란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자 이란과도 완전히 배척하게 되어 중동의 외톨이가 되었다. 하지만 강력한 미국의 원조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동에서 결코 힘으로 밀리지 않는 국가로서 존재해오며 중동 정세의 한 축을 맡아왔다.

중동의 아랍계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무기체제를 적극 도입하는 등 친미적인 성격을 띠어왔지만,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편을 들지 않아왔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아랍계인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2차 세계대전 이후 갑자기 나타나 가로챘으며, 4차례의 전쟁과 끊이지 않는 소규모 국지전을 통해 수 많은 아랍인에게 상해를 입혀왔다. 미국은 1993년의 오슬로 협정, 1998년의 와이밀스 협정 등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을 중재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드물었고, 팔레스타인의 국가 승인 문제,²³⁾ 예루살렘의 정치적, 종교적 위치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이스라엘과 아랍 세력 간의 관계는 개선되지 못하였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취임 이후 적극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쳐 최소한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는 아랍 국가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1995년 제정된 예루살렘 대사관 법에 따라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며, “법이 제정된 지 22년

Embargo as ‘Momentous Day’,” The Guardian, October 18, 2020.

22) John W. Garver, China and Iran: An Emerging Partnership Post-Sanctions (Middle East Institute, February 2016.), pp. 4-5.

23) 팔레스타인은 1988년 독립선언 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들에 인정받지 못하다가 2012년 11월에야 UN에 비회원 옵저버 자격의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Status of Palestine in the United States,” United Nations, <https://www.un.org/unispal/document/auto-insert-182149/> (검색일: 2020. 9. 5.)

이 지난 오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다”고 발언하며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것임을 공언하였다.²⁴⁾ 2019년 7월 팔레스타인에 500억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팔 평화계획’의 발표와 2020년 1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백악관에서 발표한 ‘중동 평화안’ 등 또한 팔레스타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친이스라엘 정책에 기반한 중동 평화정책이지만 분명 중동의 정세 안정을 위하여 미국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인식시켜 주었다. 그리고 2020년 8월 13일, 이스라엘과 UAE 간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파되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중동 정세에 큰 변화를 준 사건으로 해석되었다. UAE는 비록 소국이나 21세기에 들어 눈부신 경제발전에 힘입어 아랍국가 중 가장 개방적인 국가로 인식되어 왔고, 여러 국제문제에서 아랍 국가들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대변하여 왔다. UAE의 이스라엘과의 수교는 아랍 세력들이 연이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어서 중동에서 주요 친미국가 중 하나인 바레인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였다.²⁵⁾ 그리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다른 아랍 국가들과도 비공개적으로 관계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발표하여 이러한 예측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²⁶⁾

이러한 아랍 국가들의 연쇄적인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봉쇄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미국은 이란 핵협정을 탈퇴함으로써 이란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했지만 이란 핵협정은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기타 국가들이 다소 느린 속도지만 협정을 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은 의도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랍-페르시아라는 중동의 대립 정세를 활용한다면 최소한 역내에서 이란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고, 아랍 측에 힘을 더할 수 있다면 그 동안 역내 역학관계에서 한걸음 물러서 있던 이스라엘을 아랍 측으로 합류시키는 것이 가장 용이하면서 또한 정치적으로 가장 이로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관계 개선이 시작되면서, 중동 역학의 무게 추가 아랍 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란 전망과 분석이 다수 존재한다.²⁷⁾ 하지만 팔

24) Proclamation 9683 of December 6, 2017, “Recognizing Jerusalem as the Capital of the State of Israel and Relocating the United States Embassy to Israel to Jerusalem,” Presidential Documents, *Federal Register*, Vol. 82, No. 236, December 11, 2017.

25) 이스라엘은 UAE와 바레인과 같은 형태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UAE와는 국제법상 효력이 있는(legally-binding) 평화조약(peace treaty)을, 바레인과는 정치적 선언인 평화선언(declaration of peace)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Jacob Magid, “Israel to sign ‘peace treaty’ with UAE, but ‘peace declaration’ with Bahrain,” *The Times of Israel*, September 14, 2020.

26) 노재현, “이스라엘 네타냐후 ‘더 많은 아랍 지도자와 비공개로 수교 논의,’” 『연합뉴스』, 2020. 8.31.

27) 정의길, “이란 대 이스라엘-사우디 연합의 대결이 시작됐다,” 『한겨레』, 2020. 8.15.

레스타인이라는 폭탄과도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끌어안고 있다는 점, 아랍계 내부에서도 ‘이슬람에 대한 배신’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급속도로 진전된 관계가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어떻게 향후 진전될 것이라는 점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아랍의 승리, 페르시아의 패배’라고 간단히 정리하는 것은 지나친 예단일 것이다.

IV. 이란의 해양전략

1. 이란 해군의 구조적 특성

이란 해군은 다른 나라 해군들과 다른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통상의 국가들은 국방부 산하의 정규 해군이 존재하고, 다른 해상에서의 무력수단은 해안경비대 또는 해양경찰들이 있으나, 이란은 정규 해군(Islamic Republic of Iran Navy: IRIN)과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Isr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Navy: IRGCN)의 두 개의 해군이 존재한다. 두 해군 모두 국가의 정식 해군으로 존재하며, 한 조직이 다른 조직의 상위에 있거나 다른 권한을 가진 군이 아니라 동일한 권한을 가진 군이다.²⁸⁾ 이렇게 두 개의 복잡한 군 구조를 갖추게 된 데에는 이란이 1970년대 후반 이슬람 혁명을 겪으면서 팔레비 왕조를 몰락시키고 호메이니가 라흐바르라는 종교 및 세속 최고지도자로 집권하게 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첫째, 이슬람 혁명을 통해 호메이니가 독재 정권을 수립하면서 소위 ‘이슬람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전력이 필요하였으며, 둘째, 이란 정규군의 주요 인사들은 과거 이란의 팔레비 왕조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인원들로 이들을 군 내부에서 견제하고 반대로 호메이니의 정권에 충성하는 군을 수립하여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군부의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²⁹⁾ 호메이니는 독재자로 집권하며 기존의 군대 조직에 더하여 이슬람 혁명세력을 호위할 군대 조직을 추가로 설립하였는데, 이것이 이슬람 혁명수비대(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IRGC)로, 이란 정규군과 이원화된 구조로 이란 최고지도자(라흐바르)의 지휘를 받는다.

28) 이란의 이러한 해군 구조를 미 해군 정보국은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인 ‘두 도시 이야기’를 본 따서 ‘두 해군 이야기(A tale of two navies)’라고 비유한 바 있다.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Iranian Naval Forces: A Tale of Two Navies* (Washington D.C.: Office of Prepublication and Security Review, February 2017).

29)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Iranian Naval Forces*, pp. 14-15.

〈표 2〉 이란 군의 구조



* 최고지도자(라흐바르)는 이슬람 혁명수비대 고드스군과 정보조직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직접적인 지휘통제를 시행한다.

* 출처 :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Iranian Naval Forces, p. 14.

이란은 최고지도자(라흐바르)가 군 통수권을 가진 가운데에 실질적인 지휘권은 국방총참모부(Armed Forces General Staff)가 행사하며, 예하에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이란 정규군(Artesh)이 편성되어 각각 육, 해, 공군을 별도로 운용하고, 혁명수비대 예하에는 육, 해, 공군 외에도 일종의 특수전사령부인 알 고드스(Qods)군³⁰⁾과 국내 반정부분자를 색출하고 정치를 통제하기 위한 바시즈 민병대(Organization of the Basij Oppressed)를 운용하고 있다.³¹⁾ 정규군과 혁명수비대의 역할 구분이 다소 모호한 육군이나 공군과 달리, 해군은 정규군과 혁명수비대의 구분이 명확한 편이다. 이란 정규 해군은 전통적인 해군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은 비정규전의 역할을 수행하고, 거기에 타국의 해안경비대의 임무를 추가로 수행한다.³²⁾ 즉, 이란 해군은 원해 임무, 해양교통로 보호, 타국 해군과의 국제협력 등 주로 전통적인 해군의 임무를 수행하고,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은 연안방어, 침투하는 적에 대한 기습공격 등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임무를 주로 수행한다. 이러한 임무

30) 2020년 1월 3일 미군의 드론 공격에 의해 지휘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가 사망하면서 유명해진 부대로, 라흐바르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31) Saeid Golkar, "Organization of the Oppressed or Organization for Oppressing: Analysing the Role of the Basij Militia of Iran," *Politics, Religion&Ideology*, Vol. 13, No. 4, p. 457.

32) 중동 국가들은 이란과 같이 해군과 해안경계의 이원화가 된 국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UAE의 경우 정규 해군의 역할을 수행하는 UAE Navy와 해안경계와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주 임무로 하는 UAE Critical Infrastructure and Coastal Protection Agency(CICPA)가 별도의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다.

구분에 따라 전력구성 또한 상이하다. 오랜 경제제재로 인해 양측 모두 전반적으로 노후한 전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력의 구성 형태가 많이 다르다. 이란 해군은 자마란급 호위함, 킬로급 잠수함, 군수지원함 등의 중대형 함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은 고속정, 유도탄정, 기뢰부설정 등 소형 함정들로 구성되어 기습공격과 비대칭전에 특화되어 있다.³³⁾ 임무구역의 구분 또한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기준으로 좁고 얕은 내해 쪽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그리고 넓고 깊은 외해 쪽과 이란 북쪽의 카스피해는 이란 해군이 담당한다.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이 독자적으로 비대칭 전력을 운용하며 외해로부터의 침투를 차단하는 데에 집중하는 바와 달리, 이란 정규군 해군은 다른 국가들과의 교류 또한 활발한 편이다. 이란 정규군 해군은 인도양해군심포지엄(Indian Ocean Naval Symposium: IONS)의 정규 회원으로서 인도양의 해양안보 증진을 위한 논의에 참가하고 있고, 2020년 제6회 인도양해군심포지엄에서는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의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³⁴⁾ 2013년에는 이란 정규 해군 함정이 최초로 지중해에 진출하기도 하였고 이란 해군기지에 중국 해군 구축함 입항을 허가하기도 하는 등 다른 국가 해군들과의 국제협력도 증진하고 있다.

2. 이란의 국가전략과 해양전략

이란은 국방과 관련된 투명성 측면에서 매우 불투명한 국가로, 국가 차원에서 이란의 전략에 대하여 국방백서 등의 문서를 통하여 공식적인 사항을 일절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표되어 있는 이란의 해양전략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위의 이론적 논의에서 논한 국가전략과 해양전략의 관계에 따라 먼저 이란의 국가이익과 국가전략을 논한 다음, 이란 군의 전력 구성과 최근의 활동상을 분석함으로써 이란의 해양전략에 대해서 논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국가이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오랜 기간 외세로부터 지배받지 않은 독립적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란은 중동의 주요 패권국가로서 역할한다. 둘째, 이란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하여 중동 지역의 시아파 세력들을 지원한다. 셋째, 대이란 제재에 대한 해법 모색과 시리아에서의 이란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터키 등 일부 미국의 우방과도 협력한다.³⁵⁾ 즉,

33) 단, 이란 해군력의 모든 비대칭 전력이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란 해군 또한 Ghadir급 잠수정 등 수중 침투, 기습공격 등을 감행할 수 있는 소형 전력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란 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비대칭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34) Indian Ocean Naval Symposium, available at <https://www.ions.global> (검색일 : 2020. 7.10.).

35) Kenneth Katzman, "Iran's Foreign and Defense Policies," p. 2.

이란은 스스로를 중동의 패권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시아파의 역사적 맹주로서 중동 각지의 시아파를 지원하며 중동에서의 자국의 위치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란은 스스로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동의 시아파 정권 또는 반군단체들을 지원하고 때때로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행사한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인근 국가에 이란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직간접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시아파 무슬림들을 이란으로 유학하도록 하여 교육을 시킨다. 또한 이란은 시아파 국가들과 경제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해당 국가들의 이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³⁶⁾ 이란의 국가전략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중동의 패권국가로서의 지위 유지’라는 국가목표(end)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적, 경제적 수단(means)을 활용하여 주변국과 시아파 무슬림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과 협력(way)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란의 해양전략을 위의 국가전략의 연속선상에서 분석해보자면, ‘중동의 해양 패권국가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의 자원, 정규 해군 및 혁명수비대 해군을 활용하여(means) 주변국들과의 해양 위협에 대응하고 우방국 해군들과 협력(way)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이란은 정규 해군 및 혁명수비대 해군이라는 이원화된 군을 운용함으로써 다른 국가들보다는 보다 복잡하고 구분된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표 3〉 이란의 국가전략과 해양전략

구분	국가전략	해양전략
목표(end)	중동의 패권국가 유지	중동의 해양 패권국가 유지
수단(means)	군사적, 경제적	해양 자원, 이란 해군(IRIN, IRGCN)
방법(way)	주변국과 전 세계 시아파 무슬림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주변국 해양위협에 대응, 우방국 해군들과의 협력

정규 해군과 혁명수비대 해군을 활용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이 분리하여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이란은 이슬람 혁명수비대를 활용한 적극적인 해양거부(sea denial) 전략을 시행한다.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지휘부는 이란보다 발전한 해군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비대칭 전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탱커전쟁(Tanker War)’라고 불리는 유조선에 대

36) Ibid., pp. 3-6.

한 지속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1984년부터 1988년 사이의 기간 동안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항해하던 유조선 52척을 격침시키거나 큰 피해를 입혔고, 특히 전쟁 막바지인 1987년부터 1988년 8월까지의 페르시아만을 항해하던 선박에 대한 143회의 공격을 가하였다. 탱커전쟁 초반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은 경무장 고속 보트, 기뢰 등 비정규전 전력을 주로 활용하였지만 1986년 중국으로부터 실크월 지대함 미사일을 수입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해안방어능력을 강화한 가운데에 더 많은 선박들을 공격할 수 있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오늘날에도 소형 경비정, 보트, 기뢰부설정 등을 주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첩보에 의하면 북한으로부터 30여척의 어뢰정을 수입했다고 알려져 있다.³⁷⁾ 향후에도 소형 선박, 무인 무기체계 등의 획득을 주 목적으로 해양역제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란 정규 해군은 작전반경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란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 이란 정규 해군의 작전구역은 2006년 이후 호르무즈 해협 외곽과 카스피해로 지정되었으며,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형함정들을 건설하며 원해작전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이란 핵합의 체결 이후 이란에 대한 재래식 무기 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란은 해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 또한 보였는데, 언젠가는 미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항공모함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도 있으며, 하산 로하이니 대통령은 이란 원자력 연구원에 함정에 탑재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체계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는 것을 승인한 바도 있다.³⁸⁾ 미 해군정보국은 이란이 해양력을 강화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세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³⁹⁾ 첫째는 이란 핵합의의 상황이다. 이란 핵합의가 정상 진행이 되어야 이란에 대한 재래식 무기 제재의 근거가 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해제될 수 있을 것이다.⁴⁰⁾ 둘째, 유가의 문제이다. 이란은 원유 수출에도 제재가 걸려 있긴 하지만, 여전히 원유는 이란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다.⁴¹⁾ 2020년 초부터 벌어진 미국의 셰일가스 회사들을 원유 시장에서 밀어내기 위한 러시

37)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Iranian Naval Forces*, pp. 21-24.

38) "Iranian Navy Reveals to Build Aircraft Carrier," *Fars News Agency*, December 26 2016, <http://en.farsnews.ir/newstext.aspx?nn=13951006001117>.

39)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Iranian Naval Forces*, p. 42.

40) 2018년 미국이 이란 핵합의 탈퇴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란 핵합의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힘들 것이다. 더욱이, 2020년 9월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이란 핵합의 이전으로 돌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Julian Borger, "US to break with UN security council and reimpose Iran snapback sanctions," *The Guardian*, September 19, 2020.

41) 원유 수출 제재로 인한 공식적인 해외 수출량은 없지만 중국으로의 비공식적 수출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Why Impact of low oil prices on Iran is 'minimal?'," *Tehran Times*, April 13, 2020, <https://www.tehrantimes.com/news/446721/Why-impact-of-low-oil-prices-on-Iran-is-minimal> (검색일 : 2020. 7. 4.).

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증산으로 인한 유가하락은 미국 셰일가스 시장에서 큰 타격을 주었지만, 경제제재로 원유 수출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이란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는 분석도 존재한다.⁴²⁾ 셋째, 이란 군부 지휘부의 동향이다. 로하이니 대통령이 해군력 강화를 위한 여러 지시를 내리긴 하였으나, 아직 이란은 육군 위주의 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많은 예산을 해군 전력 강화보다는 미사일과 핵 개발에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력 강화의 필요성을 군 지휘부가 체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분석이다.⁴³⁾ 외국 해군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주체도 이란 정규군 해군이다. 위에서 상술한 인도양해군심포지엄에 이란 정규 해군 사령관 명의(Commander of the IRIN)로 참가하고 있고, 중국과의 해군 차원의 교류를 강화하는 것도 이란 정규 해군의 몫이다. 이란 해군 함정이 2012년 중국을 최초 방문한 데에 이어, 2014년 9월 중국 구축함이 페르시아만에 역사상 최초로 전개할 때 이 함정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도 이란 정규 해군이다. 이후 2017년 6월 당시 중국 구축함 2척이 이란 해군기지에 정박하여 양국 해군 간 유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역내에서 미국의 힘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바 있다.⁴⁴⁾ 2019년 12 월에는 ‘해양안보벨트(Marine Security Belt)’라는 이름으로 러시아-중국-이란 해군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해군 지휘부 간의 대담을 갖는 등 IMSC에 대응하여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⁴⁵⁾

이와 같이 이란 정규 해군과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은 각기 다른 전력 구조와 활동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위 두 세력의 개별적인 활동 하에서도 공통적인 분모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현재의 세력구도를 깨고 역내에서 패권세력으로서 우위를 잡기 위한 노력보다,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해양억제전략을 전개하여, 현재 중동의 역내 양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그것이다.

3. 이란의 해양전략에 대한 현실주의적 분석

현재 중동의 역내 구조는 상술한 바와 같이 무정부적 체제 하에서의 사우디아라비

42) Ebad Ebadi, "Oil Price Drop Brings More Economic Challenges for Iran," *Atlantic Council*, May 18 2020,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iransource/oil-price-drop-brings-more-economic-challenges-for-iran/>

43)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Iranian Naval Forces*, p. 42.

44) "China's Naval Flotilla Docks at Iranian Port," *Fars News Agency*, June 15, 2017, <https://en.farsnews.ir/newstext.aspx?nn=13960325000494> (검색일: 2020. 7. 5.)

45) Syed Fazl-e Haider,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Chinese-Iranian-Russian Naval Drills in the Indian Ocean," *China Brief*, The Jamestown Foundation, January 17 2020, <https://jamestown.org/program/the-strategic-implications-of-chinese-iranian-russian-naval-drills-in-the-indian-ocean/> (검색일: 2020. 7. 4.)

아(아랍)와 이란(페르시아)의 양극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서로 각기 상이한 민족적, 종파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민족과 종파가 지역 내 갈등을 유발시키는 유일한 독립변수라고 하면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많다. 가장 큰 설명되지 않는 것이 바로 아랍과 미국의 연합, 그리고 이에 반하는 이란과 중국-러시아의 연합이다. 종교적인 변수로 이를 설명하고자 하기에는 수니와 청교도, 시아와 그리스 정교-무종교의 갈등을 설명력이 부족하고, 결국 이에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중동 또한 무정부적 국제질서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미-중 또는 미-러를 중심으로 하는 범지구적 강대국 정치의 연속이라는 해석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이란의 해양전략 또한 이러한 범주 내에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이란의 해양전략은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의 무정부적 체제 내에서 중동의 해양 패권국가로서의 현상(status quo)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첫째,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은 철저하게 비대칭적인 전력을 바탕으로 외부로부터 침투해오는 적을 차단하는 데에 집중하며, 페르시아만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유지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이란 정규 해군 또한 부족한 예산과 경제제재 때문에 비대칭 전력 위주의 전력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억지에 필요한 해군력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셋째, 언론에 공개된 이란 해군의 무기체계 획득 계획에 따르면 이들은 방어적 목적에 집중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란의 무기체계 획득사업은 수십년 간 지속된 경제제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서방의 무기체계의 구매는 제한되었다. 하지만 중국, 북한 등 이란의 우방을 통해 구매한 무기체계들 성격 자체가 방어적이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미 해군정보부에 따르면 이란 해군이 획득한 대표적인 해상 무기체계는 중국제 C802 미사일로 이를 호위함에 탑재하여 단거리 함대함유도탄으로 운용하거나, 해안방어미사일로 사용하고 있다. 해양에서의 대표적인 공격무기로 구분되는 잠수함 사업 또한 상당히 방어적인 도입 양상을 띠고 있는데, 바로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을 구매했다는 점이다. 페르시아만의 좁고 얕은 바다를 고려하더라도 연어급이 아닌 상어급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정규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잠수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전의 범위가 지극히 제한되는 소형의 연어급 잠수정을 구매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방어적인 전략을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⁴⁶⁾ 또한 이란의 외교장관 자바드 자리프는 “이란과 그 대리자들은 이라크의 미군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하려 하고 있다”라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위터에 대하여 “이란은 오직 자국방어(self-defense)만 행한다”라고 대답한 바 있으며,⁴⁷⁾

46)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Iranian Naval Forces*, p. 30-31.

47) Vishal Tiwari, “Iran Only Acts In Self-Defense’, Says Javad Zarif After Trump’s Warning,” *Republic World*, April 2, 2020.

이란 외교부는 2020년 10월 18일 유엔의 이란에 대한 재래식 무기 금수조치가 공식 해제된 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하여 “이란의 무기체계는 오직 방어적인 측면에 집중될 것”이라며 이란의 무기체계 도입이 방어적 무기체계에 집중할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⁴⁸⁾

무엇보다도 무정부적 구조적 체제 하에서 이란 해군의 노력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미국과 적대적 또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해군과의 협력 강화이다. 러시아와는 소련 시절 이란-이라크 전쟁 때부터 협력을 맺어오며 잠수함을 수입한 바 있다. 2000년대에 들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무기 수입의 길이 끊기자, 가장 먼저 접촉한 국가가 중국과 북한이다. 이란은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 기술을 일정부분 건네주고, 이란은 연어급 잠수정과 어뢰정을 포함한 해군 함정을 비밀리에 수입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 중국 해군의 힘이 강해지면서 원해 작전능력이 증가하자, 이란은 중국 함정들을 이란의 항구에 기항시키고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중국 해군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활동과 협력을 통해 미국 해군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의 해군들과 미국의 연합전선에 대응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세력균형을 유지하여 양극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이란의 해양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 해군이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확대한 데에 대하여 이란이 반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이란의 나쁘지 않은 양자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이란에 대해 공세적인 성격을 갖는 IMSC에 직접적인 참가는 하지 않았지만 연락장교를 파견하여 IMSC와 필요 시 협조한다는 것은 이란이 보기에 미국과 아랍의 연합 쪽에 상대적으로 무게 추를 달아주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이란이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제해권을 노리진 않더라도, 자국의 해양활동, 나아가 해상에서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미국과 아랍세력의 역지에 악영향을 끼칠 요소가 될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V. 결 론

이란은 중동에 거대한 영토를 지배하며 중동 내에서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이란은 중동의 주요 국가들과는 달리 페르시아 민족으로 이루어져 페르시아어

48) “Statement by the Foreign Ministry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on the Termination of UN Security Council Provisions on Arms Restrictions and Travel Ban,” Foreign Ministry of Islamic Republic of Iran, October 18, 2020.

를 사용하며, 이슬람을 믿지만 대다수인 수니파가 아닌 시아파를 믿는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대다수의 중동 국가들은 아랍 민족과 수니파로 이루어져 있어 페르시아계, 즉 오늘의 이란과 오랜 세월 대립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아랍과 페르시아의 갈등이라는 역사적 맥락,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이라는 종교적 맥락으로만 해석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비록 최초의 갈등은 역사적, 종교적 맥락으로 시작되고 이어져왔더라 하더라도, 오늘날의 중동의 구도는 미국과 아랍세력이 손을 잡고, 이란과 러시아, 중국이 협력의 범위를 강화해나가는 가운데 중동의 역내 체제는 무정부적 체제 내에서의 양극 체제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설명력을 지닐 것이다.

이란 해군은 다른 해군들과 달리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란 군은 1970년대 후반 일어난 이란 이슬람 혁명의 영향으로 정규군과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이원화된 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역할의 구분이 모호한 다른 군과 달리 해군은 명확하게 이들의 역할을 구분하였다.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에서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기습타격 임무를 수행하고, 이란 정규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 외해에서 활동하며 오만해, 아덴만 등의 영역에서 이란의 해양활동을 보호하고 다른 국가 해군들과 연합훈련 등 협력활동을 시행하는 등 전통적인 타국 해군들과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란은 중동에서의 패권국가라는 현상유지(status quo)를 위해 주로 정규 해군과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의 비대칭적인 전력들을 활용한 해양거부(sea denial) 전략을 활용하며, 주변국들의 해양위협에 대응하고 우군들과 협력을 통해 해양,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현재 위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특히 미국 및 아랍 국가들의 연합에 반하여 러시아, 북한, 그리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 중동 해역에서의 세력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019년 5월과 6월의 선박 피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 주도로 구성된 IMSC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러시아, 중국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동 해역에서의 세력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이란 핵합의의 타결에 따라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라 중국 등의 국가를 통해 대함유도탄 등 무기체계를 구매하려는 시도를 해온 바 있다.

한국 해군의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장은 이란의 관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큰 어려움이 될 수 밖에 없다. 한국과 이란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와는 별도로 긍정적인 외교관계를 유지 중에 있었으며,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에 따라 원유에 대한 이란의 경제제재가 재개될 때에도 가장 마지막까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이다. 이런 양국 간의 양자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란이 한국에 함정 및

선박에 대해서 해상에서 공격을 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보인다.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IMSC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독자적인 형태로 호르무즈 해협을 작전 지역으로 한시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 자체가 이란과의 양자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란의 일부 여론 또한 독자적 참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있기 때문이다. 이란으로서는 해양의 세력균형의 가운데에 유지하려는 한국이라는 '추'를 불필요하게 공격함으로써 세력균형의 저울에 상대방의 무게감을 더해주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해부대가 파견된 지도 10여년이 지났고, 중동 해역은 대한민국 해군의 주요 작전지역 중 하나가 되었지만 역내 주요 국가인 이란의 해군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기존에는 아덴만에서의 활동이 위주가 되었지만 이제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까지 작전구역이 한시적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이란 해군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해부대가 더욱 효율적으로 작전에 임하고, 또한 역내에서의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도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 해군의 해양전략에 대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1. 저서

-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Updated Edition*, New York: W.W. Norton and Company, 2014.
-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Alfred A. Knopf, 1948.
-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Iranian Naval Forces: A Tale of Two Navies*, Washington D.C.: Office of Prepublication and Security Review, February 2017.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Mass.: Addison-Wesley Pub, 1979.

2. 논문

- 한용섭, “국가전략과 군사전략: 한국적 군사전략 정립을 위한 방향성,”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8.
- Alterman, Jon B., “Regional Perspectives on Iran,” *Deterring Iran After the Nuclear Deal*,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March 2017.
- Farideh, Farhi, “Iranian Power Projection Strategy and Goals,” *Middle East Program*,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pril 2017.
- Garver, John W., *China and Iran: An Emerging Partnership Post-Sanctions*, Middle East Institute, February 2016.
- Golkar, Saeid, “Organization of the Oppressed or Organization for Oppressing: Analysing the Role of the Basij Militia of Iran,” *Politics, Religion&Ideology*, Vol. 13, No. 4.
- Harmer, Christopher, *Iranian Naval and Maritime Strategy*, Washington D.C.: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2013.
- Hattendorf, John B., “What is a Maritime Strategy?”, *Soundings* No. 1, October 2013.
- Katzman, Kenneth, “Iran’s Foreign and Defense Polici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pril 29, 2020.
- Miller, John, *Iranian Maritime Improvemen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Lo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13.

3. 기타자료

- 노재현, “이스라엘 네타냐후 ‘더 많은 아랍 지도자와 비공개로 수교 논의,’” 『연합뉴스』, 2020. 8.3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청해부대 임무구역 한시적 확대” (검색일: 2020. 7. 9.).
- 이경민, “호르무즈 해협서 또 유조선 2척 피격...이란 배후 부인,” 『조선일보』, 2019. 6. 13.
- 이장훈, “청해부대, 중동의 해양 화약고로 진입하다,” 『중앙일보』, 2020. 3. 26.
- 이해영, “미, ‘호르무즈호위연합→해양안보이니셔티브’ 호칭 변경,” 『연합뉴스』, 2019. 8.29.
- 정의길, “이란 대 이스라엘-사우디 연합의 대결이 시작됐다,” 『한겨레』, 2020. 8.15.
- Borger, Julian, “US to break with UN security council and reimpose Iran snapback sanctions,” *The Guardian*, September 19, 2020.
- “China’s Naval Flotilla Docks at Iranian Port,” *Fars News Agency*, June 15, 2017.
- Ebadi, Ebad, “Oil Price Drop Brings More Economic Challenges for Iran,” *Atlantic Council*, May 18, 2020.
- Foreign Ministry of Islamic Republic of Iran, “Statement by the Foreign Ministry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on the Termination of UN Security Council Provisions on Arms Restrictions and Travel Ban,” October 18, 2020.
- Haider, Syed Fazl-e,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Chinese-Iranian-Russian Naval Drills in the Indian Ocean.” *China Brief*, The Jamestown Foundation, January 17, 2020.
- “Iranian Navy Reveals to Build Aircraft Carrier,” *Fars News Agency*, December 26, 2016.
- Magid, Jacob, “Israel to sign ‘peace treaty’ with UAE, but ‘peace declaration’ with Bahrain,” *The Times of Israel*. September 14, 2020.
- Proclamation 9683 of December 6, 2017, “Recognizing Jerusalem as the Capital of the State of Israel and Relocating the United States Embassy to Israel to Jerusalem,” Presidential Documents, *Federal Register*, Vol. 82, No. 236, December 11, 2017.
- Tiwari, Vishal, “‘Iran Only Acts In Self-Defense’, Says Javad Zarif After Trump’s Warning,” *Republic World*. April 2, 2020.
- Tehran Times (<https://www.tehrantimes.com>), “Why Impact of low oil prices on Iran is ‘minimal?’”, April 13, 2020 (검색일: 2020. 9. 5.).
- United Nations (<https://www.un.org>),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Status of Palestine in the United States” (검색일: 2020. 9. 5.).
- Wintour, Patrick, “Iran Hails Lifting of 13-year UN Arms Embargo as ‘Momentous Day’,” *The Guardian*, October 18, 2020.

〈Abstract〉

An Analysis of Iran's Maritime Strategy from a Structural Perspective on Middle East International Relations: Focusing on Defensive Realism

Oh, Dongkeon

(Republic of Korea Navy HQ)

Four cargo ships were ambushed by bombs in 2019 while navigating in the Strait of Hormuz. It was not clear who attacked those ships, however, many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rgued that it was Iran due to several reasons. The United States established the maritime collective defense system named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nstruct (IMSC) in order to protect the maritime security in the Strait of Hormuz, without disclosure against whom it is aimed.

Persian, who uses the Persian language unlike other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is the major ethnic group in Iran, and most of them believe Shi'ah Islam while most of the Arabs in the Gulf countries adhere to Sunni Islam. It seems that historic and religious motives caused the bipolar system in the Middle East, however, it is plausible to analyze the system of international affairs in the Middle East via defensive or structural realism. Iran has attempted to maintain its hegemony in the region by supporting Shi'ah muslims in the neighboring countries as well as in the world by using military and economic means. In this context, Iran's maritime strategy is to maintain its maritime hegemony on the Persian Gulf via countering threats and cooperating with friendly navies by using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Navy(IRIN) and the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Navy(IRGCN). IRIN acts like other navies in the world: protecting national interest at sea, expanding its operational areas to the outer seas, and enhancing cooperation with other navies. Meanwhile, IRGCN plays a role as an asymmetric force at sea. It is composed of small and fast asymmetric assets, which can ambush ships fast and furious.

Considering the poor study for Iran's maritime strategy in Korea, analyzing the strategy is meaningful for the Republic of Korea Navy, which has operated the Cheonghae Unit for more than ten years since it has extended its operational area over the Strait of Hormuz. In order not to be drawn into the conflict in the Strait, research on the maritime strategy of Iran and other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should be started.

Key Words: Maritime Security, Maritime Strategy, Iran, Middle East, Realism